

멕시코 현대건축의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 루이스 바라간과 리카르도 레고레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ionalism in Contemporary Mexican Architecture

- From the perspective of Luis Barragan & Ricardo Legorreta -

이일형 * / Lee, Yil-Hyung

Abstract

One of the clearest reactions against Modern architecture, and its planning ideology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was the neo-Regional movement which arose at more or less the same time in several countries. In the mid-fifties architects in Mexico started to design architectures which mixed vernacular and Modern methodology to recall traditional buildings. This popular alternative to Modernism had caught on in Mexico by the recent to become the accepted approach for the most regional building built by the Mexican architects.

The regional architecture provided the continual activity, safety and economy of traditional life which was lacking in so many

Modern building, while the these ages provided a cultural continuity. Anonymity of craftsmanship, but personalization of each building; enclosed wall of strong color, wide inward opening, but flat roof; emotional layouts and poetic outdoor water space, but variable massing; as it the buildings had been constructed over several years -these were the contradictory signs of neo-Regionalism.

The Regional architecture has direct reference to human inhabitation and use, and it embraces mystery, poetic sense, a quality we are losing in Modern life. There is a freedom from rules, which shows up especially in an insouciant use of color, just for fun.

키워드 : 멕시코 현대건축, 지역주의

1. 서론

“세계화 현상은 인류의 진보인 동시에 일종의 미묘한 파괴, 즉 개선 불가능할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통을 파괴하기도 한다. 동시에 우리는 단 하나 뿐인 이러한 세계문명이 지난날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냈던 문화적 원천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종의 마찰을 야기하거나 스스로 사라져 버린다는 점을 알게된다.”고 Kenneth Frampton이 ‘비평적 지역주의(地域主義)’에 대하여: 저항의 건축을 위한 6가지 요점’이란 비평 서두에서 지적한 바 있다.¹⁾

근대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한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오래된 문화적 과거를 떨쳐버릴 필요가 있는가? 홍콩의 중국반환 시점에서 김용옥(金容沃)은 하버드대학교 엔칭연구소장인 두 웨이밍(杜維明)과의 대담에서, “현재 인류의 모든 문명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토착화(Localization)라는 양면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제는 동시적이며 변증적인데, 한국사람들은 세계화의 허상만을 좇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²⁾고 유사한 맥락의 언급을 하고 있다.

이제 한국 건축계는 8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90년대 이후

의 ‘해체주의(解體主義)’라는 세계적 건축의 흐름속에서, 1960년대 후반 이후로 계속 논의되어왔고 시도되고 있는 ‘한국성(韓國性)’ 및 전통성(傳統性)의 현대화’에 대한 본격적인 건축적 시도와 적극적인 연구가 또 한 번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화 및 세계화’의 문턱에서 반드시 극복해야될 이러한 우리 건축계의 숙명적인 과제를 우리와 유사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현대건축의 ‘지역주의(또는 토착화)’로 일찍부터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 현대건축의 지역주의에 관해 대표적인 멕시코의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과 리카르도 레고레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현대건축에서의 지역주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후기합리주의, 경험주의, 신표현주의 건축운동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들과 더불어 지역주의(地域主義) 건축³⁾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은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이지만 각 경향이 서로 중첩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⁴⁾ 본래 지역주의란 북구주(핀란드의 Alvar Aalto)에서 발생한

1) Hal Foster, 윤병호 외역,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현대미술사, 1994, p.45

2) 조선일보, 1997. 7. 3

* 정회원, 충남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것인데,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자국의 자본을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보호하면서 발전시켜보자는 사상적 배경의 형태적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⁵⁾ 이것이 거의 비슷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미국 중서부에서 신(新)지역주의 건축⁶⁾으로 이어진다.

Kenneth Frampton는 지역주의를 "국제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건축에 대해 전세계의 모든 것이 획일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반대하는 이즘(ism)이다. 즉, 어떤 한정된 지역에 관계되는 건축 또는 건축가를 긍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Mario Botta의 작품에서와 같이 건축을 지역의 특성 가운데에서도 도시의 상황속에 삽입하려고 하는 태도가 역력히 표현되는 예나 Jørn Utzon의 집합주택에서 외벽에 덴마크의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⁷⁾

지역주의⁸⁾는 과학적 접근방법보다 현상학적 접근방법⁹⁾을 요구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S.Giedion은 'On the New Regionalism, 1954' 이란 논문에서 "새로운 지역주의란 개인성에 대하여 존중함을 유도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감정적, 물질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근대운동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예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지역적 성격은 진정한 건축이라면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이다. 건축물은 모두 어떤 구체적인 '여기'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모든 곳에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장소에 특수한 성질을 구현해야만 한다. 또 역사적 건축물들은 대개 일반적인 '양식'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분명한 지역적 향취를 지니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으로써 건축은 인간에게 귀속감과 보호감을 부여한다.¹¹⁾ 사실상 지역건축에서 대지들은 여러 기능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며 이러한 기능들은 독특한 건물형태들에 의해 만족된다. 또한 물리적 조건과 필요사항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 상징체계들의 두드러진 성질들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¹²⁾

건축과 지역주의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 환경적으로 적합한

건축은 지역적 제약과 프로세스에 적응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건축에 영향을 주며 동질성을 갖게하는 지역성은 기후, 재료, 시공기술, 생활양식과 경제이다.¹³⁾ 의미, 텍스처, 개구부 색채, 번쩍거림의 처리, 건축적 단면, 내부배치는 지역적 제약에 따른다.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재료와 기후의 유사성으로 인해, 여러 지역의 건축사이에 많은 상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양피감(massiveness), 텍스처, 연속성, solid와 void의 우월성은 그리스 도서(島嶼)와 뉴멕시코 푸에블로 인디언 건축사이의 유사성을 보여주는데, 차이점은 치장회반죽(stucco)의 색채이다. 지역건축은 에너지 보존 건축으로서 환기, 난방 및 냉방의 문제는 적절한 건축적 단면과 건물의 향을 조절하므로써 해결하였다.

현대건축에서 다양한 이론과 작품을 표명하고 있는 지역주의 계열의 건축가들은 F.L. Wright, A.Aalto, B.Goff, H.Greene, C.Alexander, A.V.Eyck, G.Cullen, C.Moore, M.Ridolfi, BBPR, R.Olgiate, W.Segal, J.Utson, C.Scarpa, C.Parent, R.Pietilä, R.Bofill, A.Arribas, A.C.Baeza, J.A.Martinez, E.Miralles, E.Ambasz, R.Giurgola, R.Legorreta, L.Barragan, A.Siza 등이다.

3. 멕시코 건축의 근대화 과정과 지역주의

3-1. 멕시코 건축의 근대화 과정

멕시코 문화¹⁴⁾는 정복자 Cortes의 부대가 침략해 스페인 식민문화(1519~1825)가 이식되기까지 2천여년 동안 중앙아메리카 문화를 형성하였다. 스페인은 비록 멕시코를 정복하고 이전의 문화를 파괴하였지만, 종교적인 개종(改宗)과 상호 결혼을 통해서 정복을 정당화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적'이라고 부르는 혼혈적인(Mestizo)문화 즉, 두 개의 융합된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두 문화의 이분법(dichotomy)은 서로가 동시에 경합하면서 보충하여 완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멕시코 사람들의 개성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멕시코 문화는 다양한 개념, 반대되는 생각, 대조와 개인적인

3)기술의 진보는 광범위하게 불신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과 유사하게 정치적 지적인 견해에 따라서 전쟁의 비참함이나 잔학함을 기술과 과학 자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형성되었다.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는 사회적 현실에서 地域主義나 個人主義로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人格이나 지역 전통과 같은 것의 浪漫主義的 地方色을 띤 新表現主義 경향이 조형예술의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4)M.Lampugnani, 윤재희 역, 현대건축론, 세진사, 1987, p.290

5)최범찬, 현대건축의 이념과 작가사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83, p41

6)우세한 유럽의 자본으로부터 美國의 자본을 육성하고(미국 서부의 경우는 동부) 시장을 보호하자는 '몬로주의'의 외형적 표현으로서 F.L.Wright와 고립주의 건축과 맥락이 닿는다고 본다. 이러한 프론티어 정신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연결되는 서구의 근대건축과는 다른 조형언어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고대문명인 마야 문명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것은 南 北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이나 환태평양 문화권과도 연결되었던 것이므로, 美國의 대외진출 노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향이었다.

7)Kenneth Frampton,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五大이즘, A+U, 東京, 1981, 10, p.67

8)1960년대에 발달한 새로운 地域主義는 그 당시의 潮流였던 構造主義에 대한 보완 혹은 대체물이었다.

9)現象學은 '가까이' 있는 것에 관련되며, 그리하여 人間의 직접적인 世界內存在에 근거한 새로운 기초를 건축에 부여하려는 목적에 결부되어 있다.

10)C.N.Schulz, Genius Loci, London, Academy Editions, 1980, p.195

11)C.N.Schulz, 조희철 역, ROOTS OF MODERN ARCHITECTURE, 공간예술사, 1992, p.125

12)C.N.Schulz, 정영수 역,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 세진사, 1985, p.487

13)A.C.Antoniades, 윤도근 역, 建築 環境 디자인 原理의 展開, 기문당, 1986, p.325

14)이들의 문화권은 멕시코 이외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 일부에까지 Maya의 문명권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고도의 문화가 발달되고 있었던 곳은 멕시코 전역에 걸쳐서이다. 고대 멕시코에 있어서 당시의 생활은 주로 옥수수 재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외에도 수렵 어로 과일 등의 채취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 달비와 옥수수 등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연의 현상들이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死後世界에 대한 신앙, 대지의 수확과 관련된 母神像 등의 土偶와 人身供養의 습관 등을 비롯한 문화관습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곧바로 멕시코 건축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15)Mestizo(혼혈아: 특히 스페인과 아메리카 토인과의)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과거에 500여년이 넘게 문화가 섞였다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16)Conjunto는 공통점이 없는 형태, 오브제, 색채, 음향, 미각, 냄새 또는 생각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양상물로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각별한 특성의 현상을 나타낸다.

표현에 대해 존중하도록 교육되며, 이것은 멕시코 건축의 특이함 속에 표현되어 있다. 즉 Mestizo¹⁵⁾, Conjunto¹⁶⁾, Anástilo¹⁷⁾와 같은 특별한 개념은 디자인 이론과 결합하여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멕시코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따른 고대문화는 열대식물이 비옥한 지역에 Maya¹⁸⁾의 현란한 장식과 건조한 중앙고원 지대에 세워진 Teotihuacan과 같은 건축유산을 남겼다. 300여년간의 스페인 식민 통치는 이 나라에 상당한 흔적을 남겼는데, 신도시에 건설된 교회의 바로크 양식은 건축재료 장인기질과 시대정신을 통해 급속히 만연되었으며, 후에 유럽 신고전주의 양식의 우수한 건물들이 지어졌다. 독립 후 빈곤한 멕시코는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유럽의 절충주의에 유착되어 있었다. 1917~1930년에 걸쳐 Porfirio Diaz 체제(1877~1911)하의 유럽풍과 구별되는 새로운 국제주의 형태와 양식이 태동되었다. 스페인 식민지시대 전후(前後)로 쓰여진 형태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이뤄졌고 대중의 강력한 요구가 수용되어, 이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생겨났다. 1925년 초에 조금씩 건축의 새로운 형태는 중요성을 띄게되었고 유럽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지역특성을 받아들여려고 애쓰면서 더욱 더 순수해지고 포괄적으로 되었다.

멕시코 건축의 근대화는 1910년에 발생한 멕시코 혁명의 귀결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운동이라고 말하여지며, 그 시작은 1929년 Juan O'Gorman이 설계한 화가 'Diego Rivera 주택'과 José Villagran Garcia가 설계한 'Sanatorio' 두 건물에 의해 상징된다.¹⁹⁾ 이것들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지역들과 비교해 초기에 일어난 국제건축 운동에 포함되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작품에 멕시코적인 요소가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멕시코 건축의 형식적인 완성에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학도시(University city, 1950)의 완성에 와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작품보다도 그 이전에 복합적 순수의 혼성(混成)이 -국제주의 건축양식에서 엿보이는 모더니즘과 토착 건축양식에서 보이는 민족주의- 멕시코 건축운동에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만 한다.

60년대의 멕시코 건축은 합리주의 정신의 다양한 전개와 선진국으로부터의 모방이 무절제하게 유입되었으며, '멕시코 올림픽'은 주목할 만한 건축시설물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존재하던 건축적 혼란을 한데 묶는 계기로서 기여했다. 70년대 초기는 기능주의 건축으로부터 명확한 구분을 보여주었으나, 별도의 선언이 근대적 방법에 의해 행해지지 않았다. 비주류였던 그 당시의 젊은 건축가들은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탐구하였으며, 그들은 원형적 힘에 의해 지시되

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합주택 같은 프로젝트에서 '거주자의 참여' 같은 것에 근간을 둔 건설방법 등을 도입하였는데, 멕시코 건축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 국민에 의해 나타난 건축의 이미지를 지역발전에 수용하였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태조작과 의미생산은 일반적으로 태양을 풍부하게 받는 지방의 감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멕시코 내에서 이것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신민중주의(New-Populism)와 신험리주의 흐름의 안으로 통합해 왔다. 또한 멕시코 건축의 발전에 계속적인 자극을 준 화가와 조각가로는 Mathias Goeritz, Manuel Feligüez 등이 있는데 이들로부터 멕시코 건축은 회화적인 요소가 가득하고 조각적 조형요소가 다른 예술과의 연장선 상에 놓이게끔 되었다. 이런 종류의 예술영역에서 열렬한 상호작용이 멕시코 건축의 전통 회상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작품은 <표 1>과 같다.

<표 1> 멕시코의 근대적 건축

	작가	작품	건축적 특성
1947	L. 바라간	루이스 바라간 自宅	기억의 로맨티즘에 멕시코 주거의 원형을 되살림. 개인적 패색성의 표출.
1949	마리오 페나	유니드 알레만 아파트 단지	멕시코의 사회상황을 정면으로 다룬 기능주의 건축.
1950	알렌잔드로 존	구달라자 시장	지방도시의 발전과 개선에 대한 도시공간의 실험적 건축.
1953		大學都市	100여명의 건축가들에 의해 3년이 넘도록 숙고되어 설계한 작품으로, 집약적인 형태의 정보를 담고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
1956	리몬 토레스	상점가 계획안	철과 유리의 완전히 다른 재료로 표현된 작품으로 건축과 도시에 새로운 합리성과 관계를 주려는 실험적 작품.
1957	L. 바라간, M. 고에리츠	위성도시 관문의 타워	멕시코시의 위성도시로 향하는 관문으로 고안된, 공적인 업무의 수단으로 표현된 상징주의적인 실험적 작품.
1958	페릭스 칸델라, 에티데라 모라	오레곤 교회	구조적인 합리성이 공간적인 미로 표현된 흥미있는 작품.
1967	R. 레고레타	카미노 리얼호텔	토착적 식민지적 양식을 수용하여 국제주의 양식으로부터의 결별을 침묵속에 표현하고, 생산기술의 발전을 위한 고려. 그리고 루이스 바라간의 詩的 空間과 르 꼬르뷔제로부터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은 작품.
1973	A. 자브르도스키, 데오도라 데 테온	Delegacion Cuauhtemoc, Inforavit	기능주의 건축으로부터 명확한 구분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역사적 건축물에서 연상되었으나 직접적인 모방대신 원리적인 인용의 방법을 취했으며, 이런 건축들은 제3기 멕시코 건축의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단적으로 제시해 준다.

3-2. 멕시코 현대건축의 지역주의

멕시코에 강한 문화적 영향을 주었던 스페인은 멕시코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모더니즘과 토착성의 절충적 조화가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어, 멕시코 건축의 지역주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스페인에서는 일반 건물·광장·공원과 같은 건축이 지역적인 맥락·전통·영감(靈感)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스페인 현대건축의 특징적인 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모더니즘을 자신감있게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스페인의 낙관적인 무드와 전통적인 스페인 주거지의 흰색 육면체 구성과 외부 생활양식에 계속 존속해 있는 영감으로부터 적절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의 스페인 건축가들은 모더니즘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지중해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재발견하기 위해 고상하고 지역적인 라틴 국가들의 건축을 원천으로 하였다.²⁰⁾

비록 미니멀리즘과 추상주의라는 개념도 있지만, 스페인 건축은 지

17) Anástilo는 특별한 양식이 없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즉, 직접적이고 순수한 양식의 계통이 부재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양식적인 생각을 확대시켜서 디자인에 적용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18) Maya 文明이란 오늘날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州에서 과테말라, 유카탄반도 전역과 온두라스에 퍼진 중앙 아메리카의 고대문명을 말한다. 6~10C에 이르기까지 중앙 아메리카를 지배하던 인디언의 옛민족인 마야족은 강력한 도시국가들 형성하였고, 石造建物에 의한 거대도시 건설과 천문 역법 수학 미술 공예 등이 놀랄만큼 과학적으로 정교하였고 일종의 象形文字인 神聖文字를 사용하여 독특한 고도의 문화를 지녔었다.

19) PROCESS 37, Modern Mexican Architecture, 東京, 1983.7, pp.9~13

20) Anaxtu Zabalascoa, 정성문 역, THE NEW SPANISH ARCHITECTURE, 영문출판사, 1993, p.9

중해적인 주제들 뿐만 아니라 지방적인 context와 역사에 여전히 공명하고 있어 도시 맥락적이다. 스페인 건축의 아방가르드적 형태는 재료의 건설합과 구조의 완전성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실재를 가지며, 이러한 물리적 실재는 수(手)작업으로만 가능한 디테일의 정교함에 의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스페인 건축에는 건축적인 장소성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있으며, 반면에 석재·강철·콘크리트와 같이 딱딱하고 정확하며 꾸밈없는 재료들을 활용하여 스페인 건축이 단순히 회화적으로 보이는 실수를 막고 있다. 스페인 건축은 건축형태 및 장소에서 시적(詩的)인 낭만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이것은 멕시코의 경우와 유사하다. Rafael Moneo는 각기 다른 콘텍스트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지었는데, 지역적 장소에 명백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물을 설계하기 위하여 그리고 건축에서 시간과 공간을 앞뒤로 잇는 결합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역사와 건축으로부터 디자인 요소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

다른 나라의 지역주의 건축과 비교해 볼 때 멕시코 건축은 첫째, 건축형태에서 나타난 조소성이 대부분 단순한 기하학적 육면체와 평지붕에 의존하고 있으며, 둘째 건축기술이나 신재료의 사용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Felix Candela를 비롯한 몇몇 구조기술의 발전을 제외하고는 미비한 편이며 셋째, 합리성이나 근대적 기능성에 근거한 모더니즘보다는 문화관습과 전통성에 기초를 둔 민속성과 절충적인 모더니즘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넷째, 시적(詩的)이고 낭만적인 감성이 빛과 강렬한 색채 그리고 한정된 재료의 사용으로 작가의 주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지역적 한계에서 머물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현대건축은 풍부한 문화적 유산(Maya, Aztec 또는 Mexica지방 등)과 스페인 식민시절의 질적으로 우수한 많은 문화와 종교적인 기념물들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빛, 공간, 색채, 비례 그리고 운동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다른 것들과 분명하게 구분시키고 있고, 기본적인 조형적 개념을 반영하는 근대성과 문화적 역사성의 종합을 볼 수 있다.²¹⁾

4. 멕시코의 지역주의 건축가 Luis Barragan과 Ricardo Legorreta

4-1. 루이스 바라간 (1902~1988)

Luis Barragan은 오로지 독학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및 예술가 동료들과의 교류 그리고 건축서적으로부터 건축을 독학하였다.²²⁾ 건축가로서의 자세 또는 건축사고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화가 Jesus Reyes, 조각가 Mathias Goerits, 조원가 Ferdinand Bac 등 이었다.²³⁾ 또한 여러번의 유럽여행 특히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의 큰방·샘·수로가 만들어낸 비길데 없는 구성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이슬람 등의 토착성이 강한 건축물 그리고 이탈리아

의 여러도시, 바로크 건축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고국 멕시코의 목장·수도원·나무·수로(水路) 등의 대중적인 건축이었다.

"나의 작품은 나 자신의 생애와 경험, 그 자체라고 말하여도 좋다. 내가 살아온 배경이 그대로 작품에 표현되는 것이다."²⁴⁾ 내집은 나의 은신처이다. 그것은 편리함 만의 냉정한 건축이 아니라, 감성적인 건축인 것이다."²⁵⁾ 라는 말과 같이 그는 자신의 전형적인 원형을 바탕으로 순수한 자기적관과 건축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바라간은 이론적인 논리체계 표명도 없는데, 그 때마다 그의 날카로운 눈과 뛰어난 식견을 바탕으로 다만 지어 나갈 따름이다. 이렇게 내재적인 독자성으로 국제주의 양식의 전성기에도 근대건축의 보편적 특질인 축소지향적 통합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는데, 커다란 유리벽 대신에 그는 여전히 멕시코 전통의 stucco벽을 고집하였다. 바라간이 과달라하라에 있는 'Robles Leon 주택, 1927' 을 개조한 후로 현재까지 계획안을 포함해서 약 45점의 작품이 있는데,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El Pedregal, 1945~50' 과 '바라간 자택, 1947' 이다.

바라간의 건축물은 항상 주변환경 특히 자연과의 조화를 염두해 둔 지형학적 고려를 포함한 축감적이고 지역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한다. 기념비적인 의미를 다소 포함하고 있는 그의 건축은 멕시코의 자연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멕시코의 건축은 강한 바람 태양 폭풍우 등의 물리적 조건 속에서 투쟁적인 자기반성식의 면을 일치시키고 있는데²⁶⁾, 이러한 반영이 지역적 접근법과 동화되어 그의 작품을 특이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바라간은 멕시코의 빈곤과 기술적 미숙이라는 제약 아래서 소재를 한정하고 단순한 구조에 의한 건축을 만들었다. 그는 음영의 역할을 강조하여 음영을 규정하는 벽면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벽면은 얇은 평평한 벽이 아니라 용암을 쌓아올린 거칠은 면이며, 뜨거운 태양광선 아래서 타는 것같은 색채로 칠해진 벽면이다. 새파란 하늘 아래에 쌓아올려진 용암의 군(群)들·나무·보라색 벽·분수·광장·높은 철책은 마치 키리코²⁷⁾의 그림과 같다. 또한 바라간은 근대건축이 내버린 건축의 무대성을 전경 중경 원경 등의 실제적 장치로써 도입하고 있다. 정지된 시간·응고한 그림자·증발한 안뜰·하얀 벽위의 십자가 등이 마치 '얀 후리이데판 도 후이리스'의 오래된 건축그림 같다. 그리고 그 그림처럼 열려진 위요(圍繞)된 공간은 명상과 휴식의 장소에 어울리게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바라간의 디자인 태도에는 기능주의, 국제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내재해 있으며 멕시코 풍토에 배여있는 장소성의 표출을 강조하여 성공적인 지역주의 건축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의 주요 작품은 <표 2>와 같다.

24)PROCESS 37, Modern Mexican Architecture, 東京, 1983.7, p.149

25)Emilio Ambasz, The Architecture of Luis Barragan, MOMA, 1982, p.8

26)GA 48, House & Atelier for Luis Barragan, 東京, 1979, p.4

27)키리코(Chirico:1880~), 그리스 출생의 이탈리아 화가, 초기 초현실주의 파의 개척자로서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적 몽상적인 세계를 추상적인 양식으로 그렸다.(이것을 '키리코 양식' 이나 미술사상 '형이상학과' 라고도 한다.)

21)CONTEMPORARY MEXICAN ARCHITECTURE, SEOUL ARTS CENTER, 1994, pp.1~10

22)A+U, Luis Barragan, 東京, 1976. 9, pp.11~12

23)A+U, Luis Barragan 特輯, 東京, 1980. 8, p.7

〈표 2〉 루이스 바라간의 주요 작품

	작 품	건축적 특성
	Barragan 자택, 1947	멕시코 타쿠바에 세워진 이 주택은 그가 말하는 온신처로서의 편리보다 체험을 더욱 중요시 여겨 계획된 작품이다. 현대생활에서 잃어버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각기 성격이 다른 정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바라간의 주택설계에서 핵심적 요소인 정원에는 멕시코 전통의 추상이 혼합되어 있다. 외부공간은 복잡한 내부공간과 일치되어 통합된 전체로 되어있다. 그는 외벽함과 정적을 나타내는 내부의 디테일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한다. 또한 독특한 우수한 색채의 취급은 그의 예민한 감수성과 강렬한 멕시코의 지역적 풍토성에 강하게 반응하는 장소성을 표현하고 있다.
	Capuchin피의 예배당, 1952~55	수녀를 위한 건물로 오래된 건물의 안뜰과 예배당만을 설계했다. 외관은 검소하며 Mathias Goerith의 작품이 붙어있는 십자가가 부처된 회벽과 노란색의 콘크리트 격자벽 그리고 작은 수조(물동)가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그의 작품에서와 같이 단순한 목재와 거칠은 질감의 육중한 Stucco벽이 디자인의 주된 요소이며, 그것들이 함께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실내에 스며들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비대칭적이고 작은 건축요소로서 구성되었으나, 수도원다운 엄격함과 박력이 넘치는 작품이다.
Luis Barragan	위성도시 타워, 1957	멕시코 시티 위성도시의 큰 택지 개발구역에 세워진 상징탑이다. 중앙의 평원한 대지에 30~50m 높이의 콘크리트 탑 5개로 구성되어 있다. 3각형의 평면에 각각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각각 변화한다. 바라간의 물체 만드는 법은 이론은 없는데, 그의 높은 감수성과 예민한 관찰력, 섬세한 기법으로 직접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가 체험한 풍경과 사상은 그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작품에 표현된다. 멕시코의 복잡한 역사도 격렬한 자연도 전부 그의 신체를 통과할 때 한 덩어리인 전체가 되어 작품에 응축한다. 그의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도 신체의 열망도 이렇게 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Los Clubes, 1963~64	이 Los Clubes는 바라간의 계획으로 건축된 분양지의 일부로 馬術家들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좌측으로 마굿간이 있다. 가장 바라간다운 작품으로 물의 이미지와 조형적인 경향을 강렬한 색채의 수평벽으로 구현하고 있다. 다양한 색채와 높이가 조절된 벽체는 수마시 나무의 경관적 배치와 더불어 하늘과 어울리고 있고, 신비감을 조성하는 원근법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San Cristobal, 1967	멕시코 교외의 Egerstrom街에 마굿간, Horse pool, 수영장이 있는 큰 규모의 주택을 설계하였다. 이 건물은 말의 스케일에 따라 벽이 세워졌으며, 수공간은 물은 마굿간 입구 한곳에 돌출된 언덕을 보호하는 붉은 적갈색 벽의 모서리 부분에서부터 나와 Pool에 공급된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Volume을 한정짓는 서로 다른 높이의 평면에 여러 층의 연속된 조화와 강렬한 색채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De Stijl의 구성기법이 엮여있다.
	Gilardi 자택, 1976	바라간의 자택과 근거리에 있는 이 주택은 작은 규모이다. 거주부부와 안뜰을 끼고 Pool이 있는 방이 있으며, 옆에는 식사공간이 있다. 외관은 분홍색으로 되어있고, 하얀 현관과 채광용 Louver가 있는 벽면을 지나 계단 출을 통과하면 돌연 노란색의 빛이 안에 들어온다. Pool의 한구석은 창색과 분홍색의 강렬한 색이 천장을 통해 빛을 받고 있다. 한층 더 멕시코의 풍토가 형이상학적으로 발전시켜져 처리되어 있다.

4-2. 리카르도 레고레타 (1931~)

Ricardo Legorreta는 '멕시코 근대건축의 아버지'로 알려진 Jose Villagran 밑에서 견습생으로 건축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멕시코 전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식민지시대 이후로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마을과 시가(市街)에서의 향취나 장소적 분위기를 흡입했는데, 그가 경험했던 지역건축은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멕시코 촌락들의 색채·질감, 의식을 치루던 스페인 식민지 이전시대(Prehispanic)의 중심적 공간배열, 식민지 시대의 가옥이 딸린 농장(Haciende), 위엄있는 교회들, 그리고 Zocalos·광장의 견고함으로부터 토착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다. 그는 멕시코 건축을 '멕시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적합한 환경 또는 건축'으로 정의한다. 비(非)직선적이고 비모듈화 되어있는 전통적인 건축요소들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똑같은 느낌이나 감정을 그의 건축에서 유발하게끔 시도한다. 또한 레고레타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지는 주택의 특성을 호텔과 사무실 같은 공공 공간을 만드는데 적용시켰다.

레고레타의 건축은 기능이나 예산 등의 현실적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²⁸⁾, 신비감·경외감·유머·극적인 것·감각적인 풍부함으로 가

28) 멕시코에서는 건축가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건물시공이 노동집약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만 한다. 또한 작업장소의 특성에 관해서는 고용자들이 인간적인 환경과 더불어 위엄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거복합단지에는 흥미를 갖게끔 형성하고 지역공간을 쓸모있게 하거나 또는 노동과 물건이 상호교환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레고레타는 토착적인 것을 관념화시킨 반면 모던한 것을 실제화시켰다.

득차 있다. 중요한 것은 설계사무소의 철저한 직업주의와 떨어져서 건축주 요구를 예술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있는데, 이것은 그가 공간적 비례와 진보를 통해 발전시켜온 것과, 재료와 디자인 어휘의 일관된 사용 등에 의한 미학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레고레타는 단순한 지역주의 건축가가 아니라 멕시코적인 것에 기원을 두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고 있는 건축가이다. 그는 토착건축의 특성과 현대건축 표현의 궤변과 모더니티를 함께 묶는 진취한 능력을 지녔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시각적 스타일에서가 아니라 다른 특질(즉, 인간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신비감과 색채의 가치 그리고 벽·공간·비례·운동·스케일·기술·빛과 같은 건축의 기본요소에 대해 그가 얼마나 감탄하는가가 그것이다)로부터 성장했기 때문이다. 레고레타의 주요 작품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주요 작품

작 가	작 품	건축적 특성
	Camino Real 호텔, 1967	멕시코 시티 중심부 30,000㎡의 대지에 세워져, 레고레타의 명성을 세계에 주목시킨 작품이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개념은 공공공간을 객실부분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지리적 실험의 결과치에 의해 요구되는 내력벽의 하중을 고려하여, 고층건물은 배제되고 최대 5층으로 결정됐다. 호텔의 평면은 내부의 中庭과 정원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멕시코 시골풍의 벽으로 마감된 객실에 상당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며, 호텔이 보다 즐겁게 경험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공용의 공간은 대단히 넓적이다. 설계는 관습적인 호텔에서 가장 불량한 부분인 복도에 의존하는데, 넓직하고 조소스럽게 자연빛이 채광되도록 디자인 되었다. 처음 건축된 멕시코 시티(1967)와 더불어 칸쿤(1975), 아차파(1981) 등에 3개의 카미노 리알 호텔을 연적으로 설계하였다.
	IBM 기술센터, 1977	주변에 잡다한 시설이 있는 부지에 위치한 이 건물은 위엄적이거나 거만하게 보여서는 안되며 그 지역의 특별한 감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했다. 외관은 따뜻한 회색이 지배적인데, 대조적으로 보라색 노란색 분홍색 등의 강한 색채는 창문이 나오거나 후퇴하여 보이도록 강조한다. 건물의 입면구성과 색채의 파격은 비정형적이고 생생한 감각을 풍부하게 부여한다. 이 건물과 더불어 과달라하라(1975), 미국 텍사스(1986)에 IBM 관련건물을 설계했다.
	라스 푸엔테스 수상장, 1981	레고레타는 그 부지의 지형과 산쪽으로 무성한 나무를 존중하며 계획하기를 원했으며, 수영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루종일 놀 수 있도록 분수들을 모아 놓은 설계를 하였다. 이곳은 호텔 근처에 있으며,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내기 때문에 심지어 주간에도 필요한 모든 시설인 레스토랑 샤워시설 스낵점 놀이장소 등이 완전하게 설비되어 있다. 복잡한 분수 풀 수도고 물계단 같은 시설은 분수되는 물은 독특한 멕시코적인 장소를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효과이다.
Ricardo Legorreta	레놀트 공장, 1984	800,000㎡나 되는 이 건물의 규모는 사막의 신비한 공허함 속에서 건축적 특성을 성취시켰다. 그는 사막과 벽으로부터 스스로를 발견했다. 그 벽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그는 이러한 감성적 특성을 약화시키고 싶지 않아 개방된 영역에 조경을 하는 대신에, 그 부지를 돌로 덮었다. 감미로운 색채 대신에 빨간색을 사용했고, 사막에 대항하기 보다는 그것을 보완하였다. 그 부지로 접근하는 것은 극적이었는데, 그것은 건물의 일부로서 벽이 모래언덕 뒤로 길고 낮게 뻗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벽은 밝고 감각적이고 온신처와 같으며, 위요시키는 적선 이상의 것이다. 벽이 두터워질 때 그것은 안전하고 정열적인 매스가 된다. 벽이 뻗거나 돌출하거나 또는 이중으로 될 때는 태양으로부터 온신처를 제공한다.
	몬탈반 주택, 1985	멕시코 출신 영화배우인 리카르도 몬탈반과 그의 부인을 위해 설계된 이 주택은, 매우 특별하게 도정적으로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부지는 Hollywood 언덕에 위치했는데, 주택은 고도의 조직적 형태와 조용한 볼륨의 연속,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고 사적인 생활을 위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 이 주택은 가로변에는 창문이 없으나, 일단 내부로 들어오면 빛과 개방감이 펼쳐진다. 멕시코간색 식재바닥을 깔았으며, 수제 카펫이 침실과 벽장바닥에 덮여있다. 벽은 땅의 질감처럼 거친 석회로 마감했으며, 색채는 특별한 장소 몇몇에만 강조되어 사용됐다. 자연재광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이 주어졌다.
	솔라나 IBM사무소 1986	모든 것이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했던 이 건물은, Romaldo Giurgora와 Peter Walker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다수의 건축가들이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그 건축부지 특성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멕시코의 농장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뤄졌다. 그 개념은 연속적인 벽의 합성물로 드러났다. 토의를 통하여 재료는 석회(plaster)로 정했으며, 색채는 빨간색 흰색 등으로 정해졌다. 규모는 건물높이 뿐만 아니라, 창 크기도 고려되었다.
	멕시코국립은행지점사무소 1987	이 건물은 은행지점일 뿐만 아니라 지역 지도센터이기도 한데, 표면적인 걸치장 없이도 산업시대에서 효율성을 발산할 수 있도록, 스케일 재료 채광 등에서 일체감을 갖는다. 외관은 근저 시시한경에 있는 스케일과 색채에 공감되도록 표현되었다. 대조적인 실내에는 활기찬 색채의 사용과 사색적으로 자연광을 도입함으로써, 인정되고 따뜻한 느낌을 주도록 계획하였다.

4-3. 루이스 바라간과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건축

'Barragan 자택' 'Gilardi 자택'에서의 바라간과 '카사 데 란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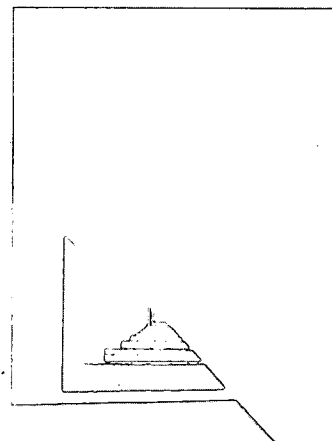
‘몬탈반 주택’에서의 레고레타는 각기 프라이버시 확보라는 주택의 과제를 전자(前者)는 폐쇄적이고 한정된 은신처로서, 후자(後者)는 개방적이면서도 안락한 공간으로 해석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다양한 정원과 수공간(pool)을 주택설계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바라간의 ‘Los Clubes’ ‘San Cristobal’에서는 수공간이 초현실적인 물의 이미지를 정적으로 구현하려 하지만, 레고레타의 ‘라스 푸엔테스’에서는 휴식의 장으로서 수공간을 다양하고 흥미롭게 처리하고 있다.

바라간의 ‘위성도시 타워’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위엄을 갖춘 상징조형물로서 커다란 스케일의 구조물이 존재하나, 레고레타의 ‘레놀트 공장’ ‘솔라나 IBM사무소’에서는 주변 환경에 조화되면서 건축물에 유기적인 연계와 스케일을 갖는 구조물로서 상징조형물이 취급되고 있다. 또한 바라간의 ‘Capuchin과 예배당’에서는 오직 소수의 성직자(修女)만을 위한 소극적인 극히 정적인 공간이나, 레고레타가 설계한 3개의 ‘Camino Real 호텔’과 ‘메디테라네 클럽’은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지역시설로서 친밀하면서도 호사스럽고 광대한 효과를 주도록 디자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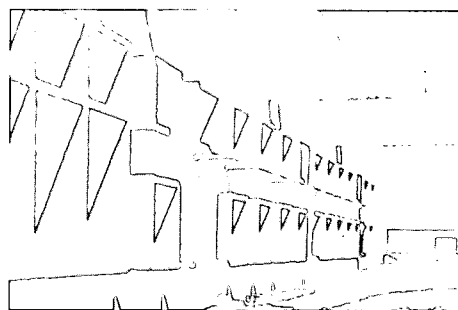
몇몇의 비평가들은 Ricardo Legorreta의 작품이 Luis Barragan과 유사성을 지녔다고 간파했으나, 이것은 피상적인 유사성이며 주로 제한된 재료와 색채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바라간은 멕시코 지역건축의 아름다움을 가장 먼저 인식했으며, 민속건축의 저변에 있는 시각적 어휘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라간의 업적은 지역적인 것과 모더니즘의 미학을 결합한 데 있으며, 레고레타의 업적은 기쁨과 유머로서 혼성적인 것을 주입한 데 있다.

그래서 바라간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작고 조절할 수 있는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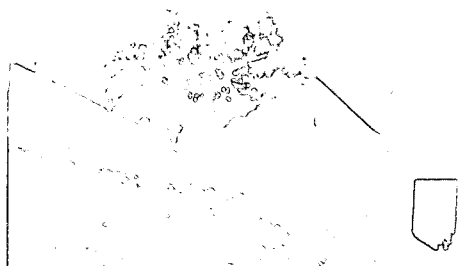
로 건축하였고, 그가 타협할 필요가 없는 이상적인 계획안을 투시하는 쪽으로 선택하였다. 그의 설계작품은 시적이고 거주할 수 있는 조각의 특성을 지니며, 레고레타보다는 더욱 순수하지만 생명력있는 부분은 덜 다루고 있다. 바라간과 레고레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의 비교특성은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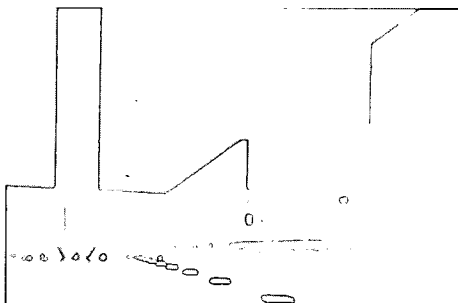
<그림 1> R 레고레타
Guadalajara IBM 공장, 1975



<그림 2> R 레고레타
Renault 공장, 1984



<그림 3> R 레고레타
Montalban 주택, 1985



<그림 4> R 레고레타
Solana IBM사무소, 1986

<표 4> L. 바라간과 R. 레고레타 건축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비교특성

		Luis Barragan	Ricardo Legorreta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변 환경에 조화 ② 멕시코 민속건축으로부터 영감 ③ 비대칭, 작은 건축요소 ④ 자신의 체험, 감수성, 예민한 관찰력 ⑤ 폐쇄적, 은신처로서의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형, 기후, 식생에 적응하며 외부중관과의 조화 ② 식민지 시대 이후의 멕시코 농장으로부터 영감 ③ 넓다란 대지의 공허함 속에서 건축적 특성을 성취 ④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건축구성 속에서 합리적인 개 방감을 구현
	VOLU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볼륨을 한정짓는 서로 다른 높이의 평면 ② 직육면체의 볼륨과 평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폐쇄적인 외부와 빛과 개방감이 넘치는 내부 ② 직육면체의 볼륨과 평지붕
SPACE	外部空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집한 내부공간과 일치되어 통합된 전체로 구현 ② 신비감을 조성하는 의도적인 원근법의 사용 ③ 정원을 주택설계의 핵심적 요소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용의 공간을 넓게 처리 ② 근처 도시환경에 있는 스케일과 색채에 공간적인 건축적 표현 ③ 다른 색을 칠한 벽, 지붕, 파골라의 낭만적인 분위기 연출
	内部空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혼란스러운 현대생활에서 잃어버린 프라이버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부의 중정과 정원으로 구성 ② 활기찬 색채의 사용과 사색적으로 자연광 도입
	水空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물의 이미지를 초현실적으로 표현 ② 靜的인 수조, Pool, Horse p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쾌한 공간구성 기법으로서의 적극적 수공간 도입 ② 분수, Pool, 수도교, 물계단, 작은시내, 분출되는 물
DETAIL	벽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De Stijl의 구성기법 ②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벽의 다양한 색채구성 ③ 소박하고 정적인 디테일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속적인 벽의 합성물로 건축표현 ② 밝고 감각적인 벽은 위요시키는 직선 이상의 의미를 지님
	色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특하고 우수한 색채의 취급 ② 강한색채의 수평벽 ③ 분홍색, 노랑색, 보라색, 붉은 적갈색, 초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색채는 형태를 강조하지만, 또한 실제적인 건물형식을 적극적으로 부정 ② 따뜻한 바탕색과 대조적으로 보라색, 노랑색, 분홍색들의 강한 색채는 창문이나 오거나 후퇴되어 보이도록 강조
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tucco ② Pla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tucco ② Plaster ③ RC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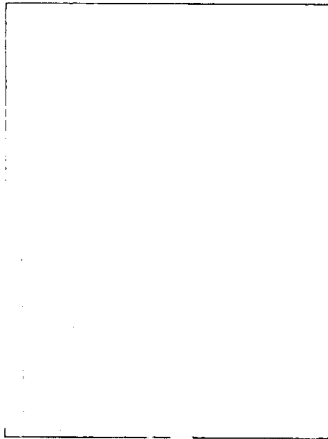
5. 결론

멕시코 현대건축에서의 지역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지역주의 건축은 인간의 거주와 용도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그 규모는 '인간적' 척도에 의한 것이다. 기념비성을 피하기 위해서 대규모 건축은 더 작은 단위로 구분된다. 또한 논리적이고 동시에 융통성이 있어서,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둘째, 건물이 주의 깊게 주변경관 속에 배치된다. 그 위치와 조형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형태와 장소성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건축재료는 자연의 것이다. 즉 벽돌, 자연석, 나무 등이다. 철강, 크롬, 대리석 그리고 큰 유리판과 같은 '값비싼' 재료는 피한다. 건설방법이나 구조의 세부표현은 수공(手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 소박한 것이 많다. 공업제품은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넷째, 형태언어는 그 지역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표현형태로서 과장하여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신비하며, 현대생활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특성이 있는 까닭에 추상화는 배제되고 직접적인 감각에 호소하게 된다. 거기에는 규칙적으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있으며, 시적이며 친밀하여 이것은 특별히 단지 즐거움만을 위해서 무관심하게 사용되는 강렬한 색채에서 보여진다. 또한 그 지방의 유머감각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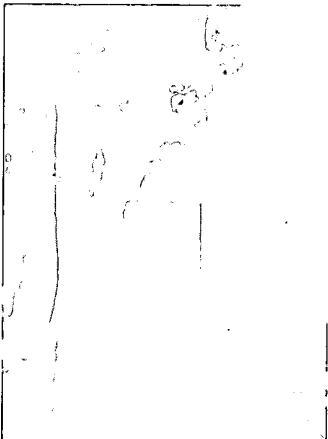
참고문헌

1. Charles Jencks, ARCHITECTURE TODAY, New York, H.N. Abrams Inc., 1980
2. Emilio Ambasz, The Architecture of Luis Barragan, MOMA, New York, 1982
3. A.C. Antoniadis, 운도근 외역 建築 環境디자인 原理의 展開, 기문당, 1986
4. V.M. Lampugnani, 지연순 역 現代建築論, 세진사, 1989
5. Wayne Attoe, The Architecture of Ricardo Legorreta, Ernst & Sohn, 1990
6. Arthur Drexler, 김진일 역 現代建築의 轉化, 태림문화사, 1991
7. C.N. Schulz, 조희철 역, ROOTS OF MODERN ARCHITECTURE, 공간예술사, 1992
8. Armando Salas Portugal, Photographs of Luis Barragan, Rizzoli, New York, 1992
9. Anaxtu Zabalbeascoa, 정성문 역, THE NEW SPANISH ARCHITECTURE, 영문출판사, 1993
10. A+U, Luis Barragan, 東京, 1976.9
11. A+U, Ricardo Legorreta, 東京, 1978.4
12. A+U, Luis Barragan 特輯, 東京, 1980.8
13. GA Document 2, Luis Barragan, ADA EDITA Tokyo Co., Ltd., 東京, 1980.9
14. PROCESS 37, Modern Mexican Architecture, 東京, 1983.7
15. GA Global Architecture Book 3, Luis Barragan, ADA EDITA Tokyo Co., Ltd., 東京, 1991.6
16. 이일형, 건축가 시리즈 13, 멕시코 건축가 Ricardo Legorreta, 플러스, 1991.6
17. Contemporary Mexican Architecture, Seoul Arts Center, 1994.9
18. 정구성,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건축: 벽과 색채 그리고 벽, 이상건축, 1994.10
19. 최범찬, 現代建築의 理念과 思想에 관한 研究, 홍대석론, 1983
20. 최윤경, 現代建築에 있어서 LOCALITY의 重要性에 관한 研究, 연대석론, 1984
21. 이일형, 建築에서 場所性을 具現하는 壁의 意味에 관한 研究, 홍대석론, 1986
22. 김지희, Mesoamerica 神殿의 造形比例에 관한 研究, 홍대석론, 1994
23. 이일형, 現代建築의 構成體系와 本質에 관한 研究, 홍대석론,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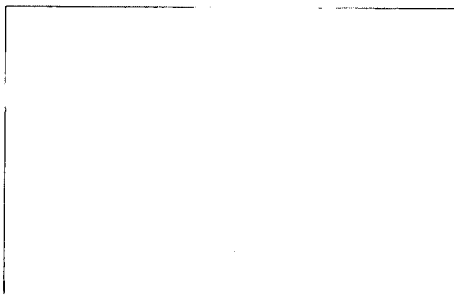
(접수 : 1997. 1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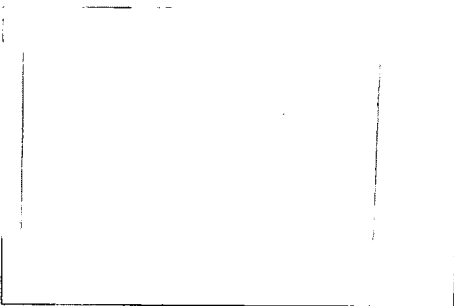
〈그림 5〉 바라간
위성도시의 탑, 1957



〈그림 6〉 바라간
Las Arboledas, 1958~61



〈그림 7〉 바라간
San Cristobal Stable, 1967~68



〈그림 8〉 바라간
Gilardi 주택, 1976